

보이지 않는 은줄로 연결된 가족의 형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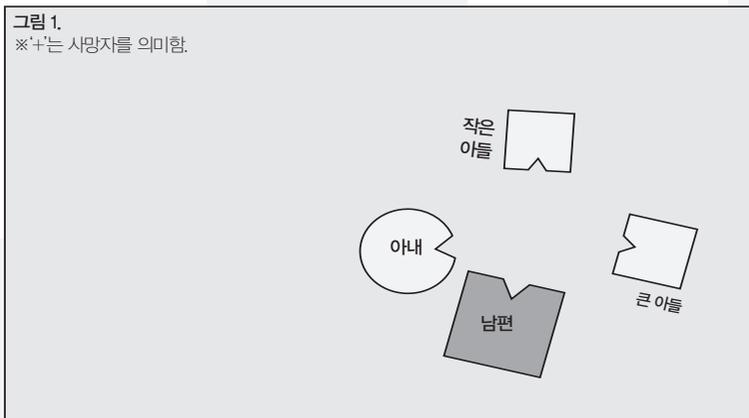
이원규(‘지금여기’ 편집인)

루퍼트 쉘드레이크는 인체에 형태형성장이라는 에너지장이 있어 거기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 개체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놀라운 이론을 발표하여 세간에 찬사와 비난을 함께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한 가족에 그 가족 고유의 형태장이 있어 이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으며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실증해보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버트 헬링거 씨입니다. 그는 ‘가족세우기’라는 독특한 테라피를 통해 개인의 어려움을 가족의 어려움으로 확대하여 쉽게 풀어내고 있어 소개해봅니다. 최근 독일에 서 그에게 가족세우기를 5년여 동안 배우고 온 박이호 선생이 한국에서 미내사를 통해 워크숍을 열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2월 24일 구로구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모임을 일부 소개합니다. 필자가 직접 참여하여 대역을 하기도 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신선한 체험과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2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한분에 대한 것만 간략히 적어봅니다. (편집자 주)

30대 중반쯤 되어보이는 그녀는 밝아보였다. 잘 웃었으며, 가볍게 삶의 무게를 지고 서있는 듯했다. 그녀가 가족의 이야기를 단순히 시작했다. “큰아들과 남편의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박이호 선생은 즉시 그녀에게 다른 참가자들 중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남편, 그녀 자신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고르라고 했다. 그녀는 둥글게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낌이 적당한 사람을 한사람씩 골라내었다. 나는 그녀의 남편 역할을 하도록 지목 받았다.

이제 그 가족 대역들을 그녀의 느낌에 맞도록 위치와 방향, 간격 등을 고려해 세울 차례이다. 그녀는 남편과 작은 아들이 마주보고, 큰 아들은 그녀 대역과 마주보게 세웠다. 남편 역할의 나를 중심으로 설명해보면 나의 좌측 가까이 그녀 대역이 서고, 정면에서 좌측으로 작은 아들, 우측에 좀 떨어져서 큰 아들을 세웠다. 이때 나의 느낌은 정면에 보이는 작은 아들을 가깝게 느꼈고 우측에 있지만 엄마 쪽만을 보고 있는 큰 아들은 먼 남처럼 느꼈으며 좌측 가까이 붙어 있지만 큰 아들을 향하고 서있는 그녀 대역은 아내라기보다 남에 더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박이호 선생이 그녀에게 바로 윗대의 가족 중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6.25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컸으며, 어머니도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양녀로 들어가 커왔다고 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을 세우세요.” 박이호 선생의 지시가 이어졌다. 그녀는 부모에 적당한 두 사람을 선택해 내 좌측 멀리에 세웠다. 그러자 그녀 대역에게 질문이 주어졌다.

“지금 느낌이 어때요? 그 자리가 편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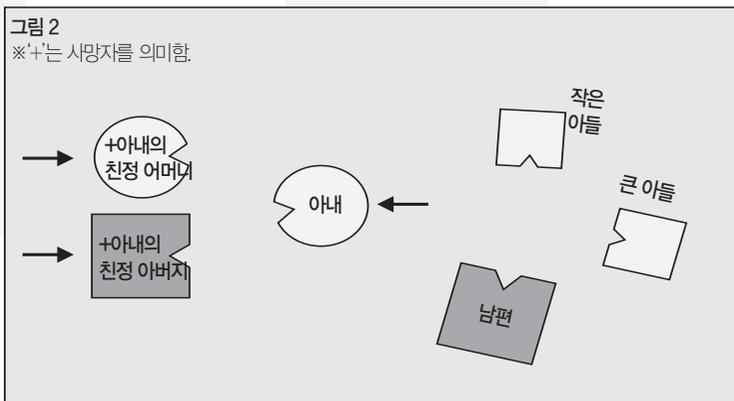
“아니요.”

“그럼 이리로 옮겨 보세요.” 박이호 선생은 그녀 대역을 내게서 떼어내며 뒤 돌아 그녀의 부모가 있는 쪽을 향하게 했다. 순간 나는 그녀를 다시 내 쪽으로 끌어오려는 충동을 느낌과 동시에 큰 아들이 더 이상 납치됨 느껴지지 않았다. 단순한 자리 이동으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는 것에 내심 놀랐다.

“지금은 어때요?”

“아까보다 편해요.”

“자, 이제 본인과 바꾸세요.” 박이호 선생은 대역을 돌아가 앉게 하고 그녀 본인을 그 자리에 서게 했다. 이제 그녀는 전 가족을 뒤로 하고 그녀의 친정부모를 향하도록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내게는 알지 못할 슬픔이 밀려왔다. 이것은 분명 머리로 이 가족의 상황을 이해한 데서 오는 주관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있음으로 해서, 남편의 대역 위치에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아내와 아내의 친정 부모가 절묘하게 서로를 심정적으로 밀고 당기며 서 있는 그 위치에 서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었다.



잠시 그 상태로 침묵이 흘렀다.

.....

그런데 머지않아 그녀의 눈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흘렀다.

“친정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가보세요.” 박이호 선생의 지시가 이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 움직여 보다가 멈추었다. 이제는 어깨를 들쩍이며 작은 소리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그녀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서있자 박이호 선생은 그녀의 등에 손을 대어 친정부모 쪽으로 밀었다. 그 순간 한(恨)과도 같은 깊은 슬픔이 내게 밀려왔다. 그리고 어느새 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왜인지는 몰랐다.

현실적으로 발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그녀는 뒤에 남겨지는 가족의 붙잡는 손들을 느끼는 듯 멍칫 멍칫 했다.

그녀는 이제 더 많이 떠밀려 나란히 서있는 부모 앞으로 데려가졌다. 그러자 모두가 들을 정도로 “엄마!—”라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부모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길을 잃었다 다시 부모를 찾은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를 부르며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친정 부모의 대역자들 눈에서도 어느새 붉은 눈물 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도, 아들들도 울었다. 친정 부모의 대역을 맡은 이들은 실제 나이들이 그녀보다 훨씬 어려보였지만 어느새 부모가 되어 그녀의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다. 주변에 둘러앉은 다른 참가자들도 그녀의 심정이 이해되는 듯 붉게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 다시 원래의 가족을 바라보도록 세워졌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쉽게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그동안 내가 느낀 감정들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나는 맨 처음 작은 아들만 친하게 느껴질 뿐, 그녀와 큰 아들은 남처럼 느껴졌었다. 특히 아내보다 더 떨어져 있던 큰 아들은 먼 남이었다. 이는 그녀가 말한 대로 큰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느낌으로 전해주는 위치였던 것이다.

그녀가 친정 부모를 향해 돌아서자 남처럼 느껴지던 큰 아들이 내 가족이라

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그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이제 친정부모를 향한 그녀와 큰 아들, 작은 아들을 두 팔로 끌어안으려는 마음이 되어 있었다. 내 가족을 온전히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다. 그녀가 우리를 멀리하고 친정부모 쪽으로 향할 때도 나는 다시 이 모두를 끌어안아 가까이 두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다. 그러다 그녀가 부모의 품에 안겨 크게 울 때는 모든 것을 잊고 그 슬픔과 함께 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나를 향해 세워졌다.

“나는 우리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입니다. 저를 여자로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도록 그녀에게 지시했다.

“나는 우리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입니다. 저를...” 그녀는 웬일인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멈추고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다시 한번 그 말을 반복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주저하며 ‘여자로 받아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박이호 선생은 남편 대역인 나에게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느꼈던 모든 것을 전부 얘기했다.

먼저 처음의 큰 아들과의 거리감. 둘째, 그녀가 돌아섰을 때 큰 아들이 내 가족으로 느껴진 점, 친정부모를 향해 가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던 점, 다시 돌아왔을 때 한 가족 전부를 품에 안고 싶었던 점, 그녀가 ‘여자로 받아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왜 하지 못할까 의아해 하며 그 말을 하고 가까이 오기를 안타까워했던 점 등.

그러자 박이호 선생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들었죠?”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우리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입니다. 저를 여자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번에는 전혀 주저함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어때요, 되었지요?” 박이호 선생이 해원(解怨)한 그녀의 마음을 보는 듯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이

번 세션을 끝맺었다. 모두 끝나고 나중에 그녀가 물었다.

“큰 아들과 남편의 사이가 안 좋은데 왜 그런 관계도가 나왔을까요?”

“가족세우기를 해보셨는데 아직 모르시겠어요?” 박이호 선생이 되묻는다.

“아니, 알겠어요.” 그녀의 답이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동시에 관계 전체를 보고난 입장의 그녀는 뭔가를 깨우친 듯 했다.

내가 느낀 것은 늘 친정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에 담고 있던 그녀가 부모를 대신할 현실적 대안으로 큰 아들만을 바라본 것이 남편에게 전해졌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남편은 아내나 그녀의 친정부모를 미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지만 무의식적으로 느낀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아내의 친정 부모 대신이었던 큰 아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녀가 친정부모를 향해 돌아섰을 때 갑자기 큰 아들이 가족으로 느껴졌고 감싸안아야 되겠다는 감정이 솟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가 큰 아들을 더 이상 부모 대역으로 삼지 않는 상황을 뜻한 것이니까. 또 그녀가 여자로 받아들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 스스로 한 여자로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늘 부모의 자식으로서만 존재하며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을까?(그녀 자신도 그 동안 사이가 좋았던 남편에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는지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렇게 그녀의 가족세우기에서는 겉으로 표현된 아들과 남편간의 소원함이, 부모에 대한 동정심으로 큰 아들을 보아온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에서 유래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역학관계를 밝혀 보여줌으로써 그 응어리가 풀어진 것이 놀라웠다. 가족관계라는 커다란 사각형에서 한쪽 끝만 문제가 생겨도 사각형 전체가 일그러진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한 깨달음, 이미 돌아간 사람들과 얽혀 있는 가족의 에너지장을 밝혀 드러내보인 가족세우기는 신선한 영감과 지혜를 일깨워주었다. 현재 가족들간의 역학관계가 아들만의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세대에 걸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온 것을 여실히 체험하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도... 